

한국언어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소 식 제 22 호 (1999년 9월)

KSLI Newsletter No 22, 1999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59-9018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 시작과 더불어 학회도 이제 연구이사 주도로 정기적인 월례발표회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도 편집위원장 노력으로 [언어와 정보] 3권 1호가 곧 발간될 예정이고, 학회지 등록을 위한 준비도 총무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학회지 등록 문제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학회에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가의 척도가 근본적으로 '질'보다는 '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회가 좀 더 '형식화'되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회의 '비형식적'인 전통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진]은 학회지 등록 문제가 단지 선택의 문제지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 많은 학교에서 논문을 평가할 때, 거의 맹목적으로 게재 학술지의 [학진] 등록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선택'은 그저 허울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근자에 소규모 학회들에서 신청서류 준비과정에 일어나는 일부 우스꽝스러운 일들은 결국 [학진]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몸짓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회도 크게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학회지 등록은 회원의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회로서도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류 준비와 관련된 '무리'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새로운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등록에 대한 준비로 우리학회는 그 동안 회칙도 정비하고, 학회 활동도 좀 더 형식화하고 있으며, 또한 타 학회와의 협조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회칙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었고, 학회 홈페이지를 점차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문법학회를 비롯한 한 두 학회와 회원 교차 인정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사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구체화되는 대로 회원 여러분께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회가 관여하는 국제적 학술행사인 PACLIC 14 (February 15-17, 2000, Tokyo) 의 논문모집마감이 10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과의 연락이 미비하여 회원들에게 진작 자세한 논문모집 공고를 알려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회원들께서 논문모집에 응모하시고 또 내년 2월의 동경 학회

에도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와 관련된 제반 의문 사항은 아래 [논문모집공고]에 나온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회로 연락을 해 주셔도 됩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어와 정보] 논문 투고가 적다고 편집위원장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모쪼록 많은 회원께서 기회가 되는대로 학회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월 월례발표회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회장 최재웅 드림

㉔ [언어정보] 원고 모집

[언어와 정보] 제 3권 1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보내실 곳 :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또는 e-mail: ynoling@hanbat.chungnam.ac.kr

포맷 : LaTeX 또는 아래아 한글 또는 MS Word

스타일 시트 : 한국 언어학회 "언어"의 스타일 시트 (학회 홈페이지 참조)

㉔ 구구조문법연구회

이번 학기는 Introduction to HPSG를 목적으로 강독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언어정보학회 정기 월례발표회가 있는 날 오후 2:30-5:00에 대우재단에서 있으며 강독교재는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Sag & Wasow(1999)과 Sag and Webelhuth의 LSA 강의 Package입니다.

㉔ 회원소식

◆취임: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익환교수님께서 99년 9월 1일자로 연세대 문과대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유은정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류병래 선생님께서 충남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연 및 발표:

- 장석진, 이기용 선생님께서 Illinois 大學에서 개최된 LSA Summer Institute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속에 무사히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두분 선생님의 강의 교재를 곧 회원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최되었던 LSA Conference에 서울대 이정민, 고려대 최재웅, 강범모, 이기용, 광운대 김용범, 한국외대 채희락, 경희대 김종복, 호남대 조세연 교수님께서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에 참석하시어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출판

- 경희대 김종복교수님께서 The Grammar of Negation: A Constraint-Based Grammar를 CSLI 출판사에서 출판하셨습니다.

㉔ 회원주소록 정정 및 주소록 배포

새로운 주소록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진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에는 더욱 충실한 주소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가 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leri@nms.kyunghee.ac.kr이나 전화 961-0211로 연락 주십시오.

㉕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99년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학기부터 평생회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평생회비제도는 학회의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김중복), 계좌번호: 012336-0071907, 경희대 서울 우체국)

㉖ PACLIC 논문 모집 공고

The Logico-Linguistic Society of Japan is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14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 14) will be held in Tokyo, Japan on February 15-17, 2000. The Conference is an annual meeting of scholars with a wide range of interest in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from the Pacific Asia region. PACLIC 14 solicits papers treating any field in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yntax, morphology, phonology, semantics, pragmatics, discourse analysis, typology, corpus linguistics, formal grammar theor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mputer applications. Four hard-copies of a preliminary version of a paper (maximum 20 letter- or A4-sized pages, 11pt, double spaced throughout) should be sent to the following address. The first page of the submitted paper should bear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title of the paper, the name(s) of the author(s), affiliations, mailing address, and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E-mail submission is also acceptable (but no fax submissions). Accepted papers will be published in the Conference Proceedings.

MAILING ADDRESSES:

For Hard-Copy Submission: PACLIC14 c/o Akira Ikeya, Chiyogaoka 4-7-4, Asao-ku, Kawasaki 215-0005 JAPAN

For Electronic Submission: kawamori@atom.brl.ntt.co.jp

IMPORTANT DATES:

Preliminary paper submission due: October 10, 1999

Notification of acceptance: November 25, 1999

Camera-ready copy due: January 5, 2000

㉞ 국내외 언어학 동향

편집자 주: 이번호의 국내·외 학술 동향은 채희락 선생님의 글을 실습니다.

Harvard ISOKL과 CKL/LSA를 다녀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채 희락

이 글에서는 본인이 지난 여름 (7월 15일-31일) 하바드 국제한국어심포지움 (Harvard ISOKL-1999: The Eighth Har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Linguistics)과 미국언어학회의 1999년 여름학교 (1999 LSA Summer Institute at UIUC)에서 열린 한국어학회 (CK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를 참가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간단히 기술하려고 한다. 이 두 학회는 모두 한국어 관련 학회였지만 본인이 일리노이대에서 약 열흘간 머무는 동안 여름학교에서 개설된 몇몇의 강의도 청강하고 기타의 학술 행사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곁들이려고 한다.

먼저 하바드 심포지움에서는 사흘간에 걸쳐 45편 가량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27편이 통사/의미론에 관한 논문이고 나머지는 음성/음운론을 비롯하여 언어습득과 역사언어학에 관한 논문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두 개의 초청논문/특강이 있었다. 먼저 MIT의 Kenstowicz 교수와 경북대의 손향숙 교수가 "phonological phrasing"에 대한 논문 ("Phonological Phrasing in Kyungsang Korean and Other Languages")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MIT의 Wexler 교수는 언어습득에 대한 "late learning early emergence"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강의 ("The Unique Checking Constraint, the Extension of the OI Stage to Object Constructions, and Word Errors in Child Korean")를 하였다. 통사/의미론 분야의 일반 논문들은 부사성 명사, 경동사, 재귀사, 부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한국어 통사/의미론의 주요 논점들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정요소 '아니'와 '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어휘인지 동일 어휘인지에 대한 공방이 장내외에서 뜨겁게 전개되어 학회 참석자들의 학구열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인 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초청연사를 제외하고 5편밖에 없었음).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어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국어) 언어학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리노이대에서 열린 한국어학회에서는 4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중 통사/의미론 관련 논문이 27편이고 나머지는 주로 음성/음운론 논문이었다. 여기서는 세 편의 초청논문이 발표되었다: "Representations and Misrepresentations of Korean Phonology" (국응도 교수, U. of Calgary), "Korean as Catalyst in Modern Phonology" (Iverson 교수, U. of Wisconsin at Milwaukee), "Where Grammar Meets Pragmatics: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Korean Discourse" (장석진 교수, 서울대). 장석진 교수님의 논문은 기존의 HPSG 문법 모델에 PRA(gmatics) 자질을 도입함으로써 통사-의미 현상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현상도 기술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통사/의미론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외국인 학자의 논문은 하바드 심포지움에서보다 더 적었다.

이번 미국언어학회의 여름학교에서는 한국어 관련 강좌가 5개나 개설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Case Marking in Korean" (김수원 교수, U of Washington), "Korean Semantics" (이기용 교수, 고려대)와 "Korean Pragmatics" (장석진 교수, 서울대)는 직접 한국어 현상을 다루는 강좌였고 "Acoustic Phonetics" (김진우 교수, UIUC)와 "Topics in Morphosyntactic Interface" (윤혜석 교수, UIUC)는 한국어가 논지전개의 주요 자료가 되었다. 이 강좌들 중에

서 마지막 강좌에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형태-통사론 관련 주요 논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단어내적) 굴절현상과 동명사 등이 보이는 구 단위 현상이 유사하며 이 유사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능범주 (functional categories)를 설정하는 통사적 방법론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굴절어미와 접어 (clitics)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HPSG 관련 강좌는 3개가 개설되었다: "Wh-Constructions" (Ivan Sag, Stanford U & Gert Webelhuth, U of North Carolina), "Lectures on Semantics for Constraint-Based Grammar" (Shalom Lappin, U of London; Carl Pollard, Ohio State U), "Grammar Development in Constraint-Based Grammar Formalisms" (Erhard Hinrichs, U of Tuebingen).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Lappin 교수와 Pollard 교수의 강의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의미론 (Situation Semantics)을 버리고 새로운 종류의 의미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표방하는 표상언어는 "람다 논리계산체계의 일종 (a certain typed lambda calculus)"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외에 본인이 일리노이대학교에 머무는 동안 Langacker 교수와 Shibatani 교수의 포럼 강의를 들었으며 접어에 대한 워크샵 ("Perspectives on Clitic and Agreement Affix Combinations")에도 참석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것 같아 보람이 있었던 여행이었다. 국내에서도 이런 공부하고 연구하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지막으로, 인지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꽤 널리 알려져 있는 베크만 연구소 (Beckman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 & Technology)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도 좋았지만 심리학이나 언어학 분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연구소의 여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지과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언어학자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 9월 18일 발표자 논문 초록

A Sequence of Tense in Propositional Attitudes and its Semantics

Mean-Young Song (Korea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semantics of tenses in the propositional attitude constructions, along with a more dependable sequence-of-tense (SOT) rule. In his recent work, Ogihara (1989 and 1996) proposes an SOT rule which roughly says that the tense in the complement of the attitude verbs should be optionally deleted under identity to its matrix tense. His proposals are, however, inappropriate for accounting for the SOT phenomenon. In the sentence *John said that Mary bought a car*, which is only interpreted with a shifted reading in which the time of Mary's buying a car is prior to John's saying time, Ogihara's SOT would have to predict that the above sentence is ambiguous between a shifted reading and a simultaneous reading in which Mary's buying time coincides with John's saying time, which is contrary to fact. To remedy this, I propose an alternative SOT rule, together with the tense co-indexing rule which says that the embedded tense is co-indexed with the matrix tense under identity, on the assumption that every tense bears a temporal index, as we can see in the referential theory of tense. The SOT rule proposed in this paper is an obligatory rule unlike Ogihara's, and is defined in terms of a binding relation between the matrix tense and the embedded tense. The tense co-indexing rule determines whether the SOT is applicable to a given sentence. The general strategy I will adopt to provide the semantic account of the SOT phenomena is essentially along the lines of the semantics of the propositional attitude

first proposed by Lewis (1979) and extended by Cresswell and von Stechow (1982). Thus, I incorporate into the semantic analysis of the tenses in the attitudes the approach in which the object of the propositional attitude is taken to be a self-ascribed property (i.e. *de se* attitudes), rather than a proposition (i.e. a set of possible worlds).

현대 한국어에서의 단형 사동의 위치에 대하여
(On the Status of Short-Form Causatives in Modern Korean)

鷲尾龍一 (Ryuichi Washio)

筑波大學 (University of Tsukuba)

高麗大學校 言語情報研究所 (RILI, Korea University)

神田外語大學 COE (COE,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國立國語研究所 (Nationa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Shibatani (1973a), "short-form" causatives such as "ip-hi-ta" express direct causation, correlating with their simplex clause structure, whereas "long-form" causatives such as "ip-key ha-ta" express indirect causation, reflecting their complex (bi-clausal) syntax. Shibatani supports this distinction between simplex and complex structures by claiming that the two types of causatives show different interpretive possibilities with respect to the binding of "caki" and the scope of adverbials: in long-form causatives, "caki" may refer either to the surface subject or to the dative-marked causee and an adverb may modify either the caused event or the causing event, whereas in short-form causatives ambiguities of this sort are never observed.

Shibatani's factual claims have since been shown by a number of linguists to be too strong: there are short-form causatives such as "ilk-hi-ta" (called "Pattern 2" in K.-D. Lee (1975)) which pass all the tests for complex clause structure (i.e., the indirect causation meaning and the ambiguities associated with "caki" and adverbials). Shibatani's theory is therefore refuted by the existence of "Pattern 2" or "Type 2" short-form causatives.

There are, however, some further questions that one needs to ask concerning short-form causatives in Korean, and the present paper takes up one of them: viz., the issue of variation in speaker judgments. Two independent problems should be distinguished here. First, speakers may agree that a given string of the form "V-hi-ta" is a possible causative verb, but disagree as to whether it behaves like a short-form causative or like a long-form causative. Typically, this happens with verbs like "ip-hi-ta" which fall under Lee's (1975) "Pattern 1" lexical causatives: thus, some linguists claim that "caki" in "emeni-ka ai-eykey caki-uy os-ul ip-hi-ess-ta" unambiguously refers to "emeni," but others claim that it may also refer to "ai." Second, and this is our major concern here, speakers disagree as to whether or not a given string of the form "V-hi-ta" is a possible causative verb. This happens with many of the Type 2 short-form causatives. Although everyone agrees that "ilk-hi-ta" is a possible causative verb, there are both substantial variations among Korean speakers, and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in individual speakers, when it comes to the possibility or naturalness of such short-form causatives as "(phili-lul) pwul-li-ta, (namwu-lul) sim-ki-ta, (kulssi-lul) ssu-i-ta," etc. This is a surprising state of affairs if

one compares Korean with, e.g., Japanese, where the corresponding causatives, "huk-ase-ru" (blow-cause), "ue-sase-ru" (plant-cause), "kak-ase-ru" (write-cause), etc., are perfectly well-formed for every speaker of Japanese (note that Japanese sase-causatives are complex verbs of the form V-cause-, much like Korean short-form causatives, though they are also like long-form causatives in being extremely productive).

Speaker variations of the above sort suggest that short-form causatives occupy a rather special position in the synchronic system called modern Korean Ñ a position which is highly "unstable," and which is apparently losing many of its occupants. Previous works on the history of Korean causatives shed much light on the cause of this unstable status of short-form causatives. J.-I. Kwon (1991) claims, for example, th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causatives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steps.

Step I. Long-form and short-form causatives come to coexist in Korean.

Step II. Causative suffixes (-i, -hi, -li, -ki) come to function also as passive suffixes, leading to the so-called "homophony crush."

Step III. The grammatical system requires this homophony crush to be avoided.

Step IV. Actual change occurs. The change proceeds in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 (a) For those dialects which lack accentual distinctions (e.g., Seoul), short-form causatives come to be restricted and superseded by long-form causatives, the "short-form" being reserved for the passive use.
- (b) For those dialects which have accentual distinctions (e.g., Pusan), short-form causatives and short-form passives are distinguished by accent, thereby avoiding the homophony crush.

Thus, at least for the Seoul dialect (and other similar dialects), Kwon's (1991) theory boils down to the claim that short-form causatives are "unstable" because they are in the process of being superseded by long-form causatives, a process that is necessary to avoid the homophony crush. The short-forms would thus be reserved for the passive use.

This hypothesis makes a synchronic prediction which appears to be correct: since Korean does not have intransitive passives, the short-form "V-hi-ta" can only be a causative if the V is intransitive, so that intransitive short-form causatives should be able to stay in the grammar of Korean, there being no short-form passives in such cases that would compete with them. Kwon (1991: 119) demonstrates the correctness of this prediction by observing that expressions like "nal-li-ta," "hul-li-ta," "sal-li-ta," "cwuk-i-ta," "wus-ki-ta," etc. are in fact natural and stable in modern Korean. This is a highly interesting consequence of the theory, which makes it worthy of serious consideration.

Kwon's hypothesis makes some further synchronic predictions that can be tested in principle. It predicts for example that, where there is a potential homophony crush, a short-form causative should display a higher degree of acceptability in the Pusan dialect than in the Seoul dialect (i.e., if a short-form passive is acceptable in both dialects, then the corresponding short-form causative should be acceptable only in the

Pusan dialect). This would lead us to expect that the coexistence of short-form causatives and the corresponding short-form passives should be a phenomenon much more wide-spread in the Pusan dialect than in the Seoul dialect.

The present author examined these consequences of the Kwon Hypothesis (with the help of five speakers of the Pusan dialect and eight speakers of the Seoul dialect). The result, reported in this paper, does not quite verify the hypothesis, leaving us with some new problems to work on.

Additive Particle *-to* and Emphatic Expressions in Korean

이예식 (경북대)

Cross-linguistically, additive particles are employed to express an emphatic flavor as the following examples show:

- (1) a. Even the president loves Mary.
a'. What you will have it named, even that it is.
b. さるも 木から 落ちる ('Even monkeys fall down from trees.')
- b'. たるも きた ('Taru came, too.')
- c. 대통령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Even the president attended the meeting.')
- c'. 철수도 왔다. ('Chulswu came, too.')

The presentation will try to account for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two uses of additive particles, especially the additive particle *-to* in Korean. (i) why are such additive particles used in emphatic expressions? (ii) Is the additive particle *-to* in Korean polysemous? (iii) why do polarity items (both polarity sensitive and free-choice) prefer mating with the particle *-to* or the particle *-(i)rato* as in (2)? What do these two types of expressions have in common?

- (2) a.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b. 아무 음식이라도 괜찮다.

(iii) why does the particle *-(i)rato* occur in concessive expressions as in (3)? What relationship do concessive expressions stand in with normal emphatic expressions?

- (3) a. 비가 올지라도 운동회는 한다.
b. ???날씨가 화창할지라도 소풍간다.
c. 아무 표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d. ???특등석 표라도 구했으니 다행이다.

To my knowledge, to date, no comprehensive analysis has been done that addresses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challenge the problems and put forth answers to them.

한국언어정보학회

<1999학년도 제2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9/18 (토)	기획 9:30-10:40	송민영 (고려대)	"A Sequence of Tense in Propositional Attitudes and its Semantics"	김용환 (양산대)
	휴식 (10분)			
	일반 10:50-11:30	Ryuichi Washio (Tsukuba U., Japan)	"On the Status of Short-form Causatives in Modern Korean"	
	일반 11:30-12:10	이예식 (경북대)	"Additive Particle <i>-to</i> and Emphatic Expressions in Korean"	
10/16 (토)	일반 9:30-10:10	홍 민표 (명지대)	"Zero Pronouns and Centering in Korean"	정소우 (성신 여대)
	일반 10:10-10:50	이정민(서울대) 정대호(한양대) 남승호(서울대)	"한국어 <i>아무-도/-라도/-나</i> 의 분포와 의미"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강범모 (고려대)	TBA	
11/20 (토)	일반 9:30-10:10	류병래 (충남대)	" <i>하다</i> 구문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과 한영 기계 번역에의 응용"	문승철 (항공대)
	일반 10:10-10:50	이정민 (서울대)	TBA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김종복 (경희대)	"Interfaces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in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12/18 (토)	일반 9:30-10:10	최규련 (연세대)	TBA	곽은주 (세종대)
	일반 10:10-10:50	이기용 (고려대)	"데이터베이스 의미론에 의한 한국어 시제 표현의 분석"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김용범 (광운대)	"On Different Kinds of Focus"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1999학년도 제2학기 강독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 ◆ 강독주제 : Introduction to HPSG
- ◆ 강독교재 : Sag &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Sag & Webelhuth 99 LSA Summer Institute Lecture Package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날 짜	시 간	발 표 자	강 독 내 용	토 론 자
9월 18일 (토)	14:30-17:00	김종복 (경희대)	Morphology in HPSG: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S&W Ch.8)	채희락 (한국외대)
10월 16일 (토)	14:30-17:00	조세연 (호남대)	Syntax in HPSG I : UDC in HPSG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s (Bouma et. al 1999)	이민행 (연세대)
11월 20일 (토)	14:30-17:00	정 찬 (동서대)	Syntax in HPSG II: Constructions in HPSG Ginzberg&Sag(1999), Ch 6 & 7	유은정 (서울대)
12월 18일 (토)	14:30-17:00	류병래 (충남대)	Semantics in HPSG: (S&W Ch.8)	이해윤 (서울대)